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Ki Chul Joo 주기철

1897-1944

Seok Hoon Seo

Abstract

Reverend Ki Chul Joo is one of the well known martyrs for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e has been studied and known as missionary; however, there is only a small amount of research regarding him as pastor and preacher. Through the research regarding sermons of Joo, we will know his preaching theology. With this research, the researches about Rev. Joo will be completed. We can separate his preaching theology into three different parts. Firstly, proclamation preaching theology, God centered preaching theology, and revelation preaching theology. We can understand about preaching theology of Ki-Chul Joo by how he understands who the preacher is. He sees a preacher as a messenger or a herald of God. When we actually analyze his writing on preaching, we noticed his stand on prophecy and preaching the word as it is instead of making it into our own words. Secondly, his preaching theology is God centered theology. His preaching is about God's glory and God's love for all people. Thirdly, his preaching is about revelation theology. He clearly defines the world after the life and he clearly believes in world beyond. He relies more on the life in heaven than the present moment. Because of his belief on the life after death, he fought against the Japanese during the colonization.

들어가는 말

한국교회가 주기철 목사를 품고 있다는 것이 큰 자랑일 것이다. 믿음의 절개와 지조를 지킨 주기철 목사와 같은 분을 오늘의 한국교회는 절실하게 바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과거 주기철 목사에 대한 연구는 편협된 측면이 많았다. 단지 순교자의 측면만을 부각하여서 그의 목회에 대한 정당한 평가 없이 잊혀져 왔다가 최근에서야 연구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게 된 이유는 주기철 목사의 설교가 40 편도 남아 있지 않는 상황에서 그의 설교와 목회 전반을 점검한다는 것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최근에는 '소양'¹학술회와 같은 학술연구회를 통해서 주기철 목사에 대해 연구하며 다시 조명하고 있다. 본 연구도 주기철 목사의 순교적 측면보다는 설교적 측면을 통해서

¹ '소양'은 주기철의 호이다.

주기철 목사의 목회 전반의 사상을 알아 봄으로 한국교회의 설교단에 조금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주기철 목사의 생애

주기철은 1897년 11월 25일 경상남도 창원군 웅천면에서 주현성 장로의 7남매 중 넷째 아들로 태어났다. 그의 집은 대체로 부유한 편이어서 웅천면에 있는 개통소학교를 다녔으며 이후 오산학교로 진학하였다.² 오산학교는 일제시대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인 남강 이승훈 선생이 세운 학교로서 당시 민족의 선각자(先覺者)들이 세운 학교들처럼 민족의식을 고취하였으며 항일적 기상을 드높이는 교육을 한 곳이었다.³ 주기철은 이곳에서 민족정신이 투철한 선생들로부터 민정정신과 항일사상에 대한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⁴ 오산학교에서 고당 조만식 장로를 만나게 되었고 이 만남은 후일 주기철 목사가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 받아가게 되는 계기다 된다.

1917년 연희전문대학 상과(商科)에 진학하였으나 안질로 인해 더 이상 학업을 진행할 수 없어 낙향하였으며, 고향 김해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던 김익두 목사의 안수를 받고 안질의 치유를 경험하였다. 이후 소명을 받고 1921년 평양장로회 신학대학교에 진학하여 신학을 공부하였다. 신학수업 후 30세에 부산 초량교회에 청빙을 받아 첫 목회를 시작하였으며, 6년 후 마산 문창교회에서 목회로 목회지를 옮겨서 목회를 하였으며 5년 뒤 평양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게 되었다. 주기철이 산정현 교회로 부임하던 1936년은 일제가 한국교회에 신사참배의 울무를 조이던 때였다.⁵ 이미 주기철은 부산 초량교회에서 그리고 마산 문창교회에서 시무하시면서 신사참배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밝혔다. 1928년 경남노회 부노회장으로 있을 때 ‘신사참배 반대 결의안’을 경남노회에 정식으로 제출하여 가결되도록 하였으며 1935년 경남노회 노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전국목회자 수양회에 강사로 초청된 자리에서 ‘예언자의

²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p. 513.

³ http://cafe.naver.com/21pp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2 “소양 주기철 목사의 생애와 신사참배 반대”

⁴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하)』, p. 514.

⁵ 위의 책, p. 516.

권위'라는 설교를 통해 신사참배의 불가함을 설교하다가 설교단에서 강제로 끌려 내려지기도 하였다.⁶

산정현 교회에 부임한 주기철은 산정현 교회의 첫 설교에서 “신사참배는 십계명의 제 1 계명과 같이 여호와와 이름에 대한 범죄요, 하나님께 대한 배신이다”⁷ 라고 외치며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설교하였고 이후 신사참배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에 맞서 싸웠다. 신사참배에 굴복하지 않기 위해 다섯 번의 투옥과 고문을 겪었고 고문⁸의 후유증으로 인해 결국 해방을 1년 앞둔 1944년 4월 21일 싸늘한 감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주기철의 설교신학

일반적으로 주기철 목사를 생각하면 순교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된다. 주기철 목사를 순교자만 안다면 주기철 목사에 대해서 절반만 알고 있는 것이다. 주기철은 순교자일 뿐만 아니라 그의 생전에는 설교자로도 명성을 얻었다. 이상규⁹는 주기철 목사가 마산 문창교회에서 평양산정현 교회로 청빙을 받게 된 이유도 그의 설교자로서의 능력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주기철의 설교세계를 연구하는 것은 목사 주기철을 바르게 아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A. 선포적 설교신학

설교자(preacher)가 설교자에 대한 어떤 정의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설교의 형태가 달라진다. 토마스 롱(Thomas G. Long)은 그의 책 “*The Witness of Preaching*”에서 설교자의 이미지를 말씀의 전령자(herald), 목양자(pastor), 이야기 전달자(storyteller), 증언자(witness)로 구분하였는데, 설교자 자신이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설교의 형태가 달라진다. 가령 설교자가 자신을 전령자로 여겼다면 그의 설교는 선포적 설교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다. 왜냐하면 전령자는 왕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¹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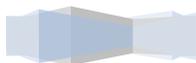
⁶ 주광조,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 (서울: 대성닷컴, 2004), p. 22~24.

⁷ 위의 책, p. 28.

⁸ 주기철 목사가 겪은 고난과 고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광조를 참조할 것.

⁹ 고신대학교 역사연구 소장. www.christiantoday.co.kr 뉴스기사

¹⁰ Thomas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Kumran출판사, 1998), p. 37.



주기철 목사가 설교자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그의 설교 ‘목사직의 영광’을 통해서 확인 할 수 있다.

목사의 설교는 자기의 주의, 자기의 학설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자기의 의견, 자기의 생각을 발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반포한 것이요, 성신의 영감을 발표하는 것입니다... ..참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대언자입니다. 그런데 대언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주는 것이요, 둘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면 무엇이든지 말하는 것입니다.¹¹

주기철에게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이자 선포자이다. 그는 설교자는 말씀의 전령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말씀을 그의 설교는 선포적 설교의 형태로 나타낸다. 정장복은 선포적 설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이 나타나고, 구원은 인간 행위로가 아니라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며, 내세와 현실의 일체감을 가지며, 행동적인 결단을 불러일으키게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¹² 주기철의 설교에서 교훈적, 치유적 설교도 있으나 대부분의 설교는 선포적 설교임을 제목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십자가의 길로 가자’, ‘하나님을 열애하라’, ‘천하에 복음을 전하라’ 등의 설교는 제목에서부터 선포적 메시지의 형태를 띠게 됨을 보게 된다.

1935년 5월 금강산 수양관에서 목사, 선교사 250명의 수양회에 주기철 목사는 ‘예언자의 권위’에 대해서 설교하였는데 일본 형사들이 있는 자리에서 신사참배의 부당함을 설교하기도 하였다.¹³

B. 하나님 중심 설교신학

주기철 설교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였다. 주승중은 ‘그가 일체의 신사참배에 대해서 생명을 바쳐서 공격하고 신앙을 지킨 것도 다 그의 하나님 중심의 신앙 때문이었다.’¹⁴고 말한다. 그가 신사참배의 압박을 죽음으로 이겨낸 것도 사실은 하나님

¹¹ 주기철, KIATS 엮음, 『한국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주기철』 (서울: 홍성사, 2008), p. 120~121.

¹²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아카데미, 2003), p. 139~140.

¹³ 결국 이 설교를 마무리 하지 못하고 일본 형사들에 의해 설교단에서 끌려 내려오게 되었다.

¹⁴ 주승중, “한국교회 순교자의 설교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4), p. 128.

중심의 신앙 때문이었다. 그의 설교 ‘일사각오’, ‘죽음의 준비’ 등은 이러한 그의 신앙관을 뒷받침하고 있다.

예수를 버리고 사느냐, 예수를 따라서 죽느냐, 예수를 버리고 사는 것은 정말 죽는 것이요. 예수를 따라서 죽는 것은 정말 사는 것이다.....영생을 믿고 소망하는 신자들은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피로써 전하여 온 부활의 복음을 우리 또한 피로 지키고 피로 전하사이다¹⁵

주기철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기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었다. 그러한 사상은 그의 설교, ‘하나님을 열애하라’ 에서도 볼 수 있다.

자연계를 보매 일월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성신은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낸 것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만유의 영광되는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오손하는 것 뿐입니다.....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나가서 무신론자가 됩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참으로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성으로 섬기고 뜨거운 사랑으로 섬깁시다!¹⁶

C. 종말론적 설교신학

주기철은 그의 설교에서 분명한 사후세계에 대한 시각이 나타난다. 그의 사생관은 단지 삶과 죽음의 문제만이 아니라 신앙적 삶에 대한 태도의 총체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사생관이 순교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였고 부당한 권력에 항거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주기철의 종말론적 1934년 8월 <종교시보>에 기재된 ‘사(死)의 준비’의 설교에서 분명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을 때를 두려워함은 형벌의 염려가 있음입니다.....소망이 없는 길을 떠나면 위로가 없고 슬픔밖에 없습니다. 신자는 천국에서 서로 만나 주를 영접하며 영광중에 먼저

¹⁵ 주기철 『한국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주기철』, p. 170~171.

¹⁶ 위의 책, p. 55~60.

**생활할 것이며 죄가 될만한 허물이 없는 것을 생각하니 기쁠 수밖에
없습니다.¹⁷**

주기철 목사는 종말에 대한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사각오’¹⁸의 설교를 통해서 주를 위해서 죽음을 각오하자는 설교를 할 수 있었으며, 잠시 영어의 몸에서 풀려나서 산정현 교회 성도들 앞에 말씀 증거하려고 했을 때 ‘5 종목의 나의 기원’의 설교와 같은 유연적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나가는 말

주기철 목사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순교의 고귀함을 간직하고 있다. 그러나 주기철 목사가 준 것은 순교의 고귀함뿐 만이 아니다. 그는 먼저 설교자의 고귀함에 대해서도 보여주고 있다. 말씀의 선포자로서의 자부심과 자긍심을 가지며 또한 말씀의 선포자가 가져야 할 책임과 의무도 분명하게 한국교회에 말하고 있다. 둘째,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을 보여 주었다. 설교자의 가슴이 뜨거울 때 그를 통해 흘러나오는 메시지도 뜨겁다. 주기철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에 그의 메시지는 세상과 타협하는 메시지가 아니었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셋째 주기철은 분명한 종말론적 신앙을 소유자였다. 사후세계에 분명한 믿음이 있기에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보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다. Long 은 오늘이 강단에 종말론적 설교가 사라졌다고 한탄하였다.¹⁹ 주기철 목사의 삶과 설교를 본받아 오늘의 강단이 회복되기를 기원한다.

Primary Source:

주기철, KIATS 엮음, 『한국기독교 지도자 강단설교 주기철』, 서울: 홍성사, 2008

Secondary Source:

김인서, 『주기철 목사의 순교사와 설교집』, 서울: 신앙생활사, 1958.

김린서,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의 순교사와 설교집』, 서울: 기문사, 1969

주광조, 『나의 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 서울: 대성닷컴(주), 2004

¹⁷ 위의 책, p. 49~50.

¹⁸ 위의 책, p. 169. ‘일사각오’ 김인서에 의해 복원된 설교로서 <주기철 목사의 순교사의 설교집>에서 김인서는 “이 설교는 평양신학교 부흥회 첫날 설교였는데, 주기철 순교 후 ‘일사각오’ 소리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나 당시 설교 내용이 기억되지 않았다. 간절히 기도하는 중 5월 30일 아침, 도마의 ‘일사각오’, 주목사의 ‘일사각오’가 알려워지고 많은 감동중에 쓴다.”고 기록하고 있다.

¹⁹ Thomas G. Long, “Imagine There’s No Heaven: The Loss of Eschatology in American Preaching”, Journal for Preachers 2006 Advent, p. 21.

- 김인수, 『한국 기독교회의 역사(하)』,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2002
- 김요나, 『일사각오: 주기철 목사 순교 일대기』, 서울: 도서출판 주성, 1992.
- 민경배, 『순교자 주기철 목사』,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7.
- 정장복, 『한국교회의 설교학 개론』, 서울: 예배와 설교 아카데미, 2001
- 주승중, “한국교회 순교자의 설교분석”, 미간행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 대학원, 1984
- Thomas G. Long, *The Witness of Preaching*, 정장복, 김운용 역, 『증언으로서의 설교』 서울: 쿠펰출판사, 1998
- Thomas G. Long, “Imagine There’s No Heaven: The Loss of Eschatology in American Preaching,” *Journal for Preachers*, 2006 Advent, p. 21.

http://cafe.naver.com/21pps.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92
“소양 주기철 목사의 생애와 신사참배 반대”

